

물이 만들어낸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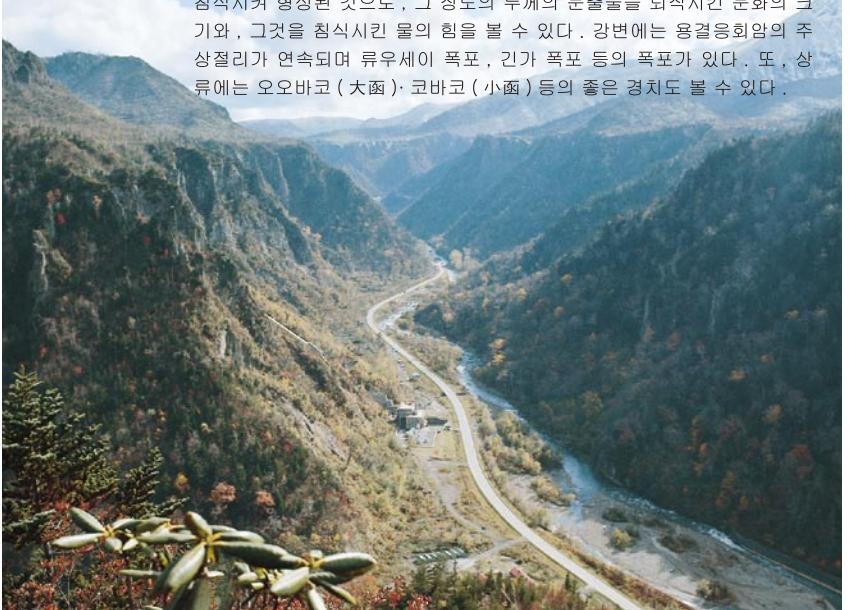
이 공원의 산기슭에는 소우운쿄우 (層雲峽), 텐닌쿄우 (天人峽) 등의 계곡과 시카리베츠호 (然別湖) 등 물이 주역이 되는 경승지가 많다.



주상절리

소우운쿄우 (層雲峽) 나 텐닌쿄우 (天人峽)의 양쪽 암벽은 바위에 규칙적인 균열이 생겨 다각형의 기둥이 연속해 서있는 듯이 보인다. 이 현상을 주상 절리라고 한다. 소우운쿄우나 텐닌쿄우를 만드는 암석은 용결동회암으로 분화 시에 분출한 화쇄류에 포함되어 있던 화산재나 경석 등의 물질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것이다. 화쇄류에 의해 지표에 분출물이 두껍게 쌓이면, 그 열로 물질이 녹아 그 중량에 의해서 압축되어 밀도가 높은 암석이 생성된다. 이것이 용결동회암이다. 지표의 암석이 차가워지면, 수축하기 때문에 바위에 균열이 생겨 그것이 땅까지 이어져 이러한 주상절리가 생긴다.

소우운쿄우 (層雲峽)



이시카리강 (石狩川)이 다이세츠잔 (大雪山)의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곳에 있는 깊은 협곡이다. 다이세츠화산의 화쇄류가 퇴적한 대지를 강이 침식시켜 형성된 것으로, 그 정도의 두께의 분출물을 퇴적시킨 분화의 크기와, 그것을 침식시킨 물의 힘을 볼 수 있다. 강변에는 용결동회암의 주상절리가 연속되며 류우세이 폭포, 긴가 폭포 등의 폭포가 있다. 또, 상류에는 오오바코 (大函)·코바코 (小函) 등의 좋은 경치도 볼 수 있다.

시카리베츠호 (然別湖)



이 국립공원에서 유일한 대규모의 자연호수로 수면표고 약 800m, 면적 약 3.5km²의 빙영양 호이다. 호수의 생성은 1만년 이상 전에 활동하고 있던 화산이 강을 막아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설과 칼데라호라고 하는 설이 있다. 수면은 12월 중순부터 거의 반년을 걸친다. 주변이 삼림으로 둘러싸인 환경으로 남해안에는 하쿠운산 (白雲山)과 텐보우잔산 (天望山)이 있다. 즉 시카리베츠호의 동쪽에는 작은 시노노메호 (東雲湖)가 있고, 시카리베츠호 남쪽 호안을 지나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남쪽의 히가시누프카우시누프리 주변의 바위가 않고, 바람구멍이 있는 지대에는 표고는 낮지만 쥐토끼가 서식하고 있다. 바람구멍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이 일대를 고산지대와 같은 한랭한 기상 조건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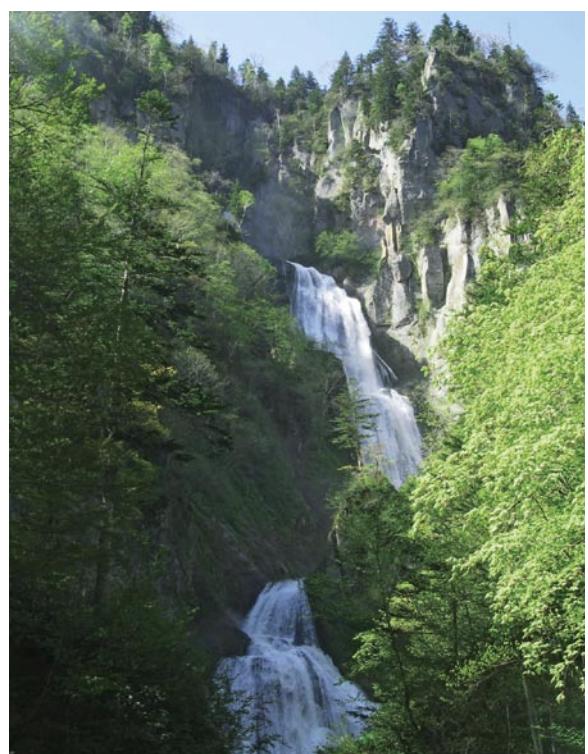
겨울의 다이세츠잔 (大雪山)은 모든 것이 눈과 얼음으로 덮인다. 소우운쿄우 (層雲峽)의 많은 폭포도 얼어붙는 맹추위이다.



류우세이 폭포 · 긴가 폭포

칼럼

아사히산 (旭岳)의 눈의 결정



홋카이도(北海道)대학 교수인 나카다니 우키치로(中谷宇吉郎 1900~1962)는 현미경으로 본 눈(雪)의 결정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눈 연구를 시작하여 눈결정을 분류하였다. 또, 인공 눈(人工雪)의 연구에서 결정이 형성되는 조건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밝혀냈다. 그 연구의 필드가 되었던 것이 아사히다케(旭岳)이다. 저온으로 청정한 다이세츠잔(大雪山)의 눈은 이상적인 결정구조를 눈굴 속에 틀어박혀 연구하는 나카타니(中谷)에게 보여주었던 것이다.